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호국
미술 The 3rd Korea Hoguk
Art Exhibition

—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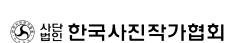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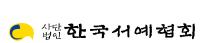
2013. 10. 8^{Tue} ~ 25^{Fri}
전쟁기념관(1F) 전쟁역사실

—
춘천

2013. 11. 5^{Tue} ~ 22^{Fri}
국립춘천박물관

주최/주관 육군본부 /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후원





“예술로 본 나라사랑이 국민안보의식으로 승화되기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국립춘천박물관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그 동안 나라사랑과 호국의지를 담은 수 많은 작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입선작을 가리는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장병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국가안보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꿈꾸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훈과 열정을 담아 만들어진 작품들은 많은 국민들과 장병들에게 큰 감동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전쟁기념관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본 나라사랑이 국민안보의식으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8일

육군참모총장 대장 권 오 성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막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미술작품을 매개로 하여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육군에서 개최하는 국민공모전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군 65주년과 정전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술과 국방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과 예술인, 그리고 장병들이 참여하여 미술대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고구려 벽화 속의 '수렵도'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은 미술작품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국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들 속에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리스 그로세가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린다"고 했듯이 그림은 명확한 관찰을 통해 그려지는 것입니다.

호국미술대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지난 날 국군 용사들이 이 땅의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냈으며,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국미술대전은 그 뛰어난 예술성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향유해야 할 호국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 국민여러분께서도 잔잔한 '호국의 감동'을 나누시면서 우리 국군이 국가방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남다른 애국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하신 작가들과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위해 애써주신 미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육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축제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큰 잔치 제3회 호국미술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새로운 군의 문화혁신이자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같이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국군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예술적 안목을 키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아름답고 값어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아름다운 삶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국가의 안보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모두 멸망하였고 그 문화도 말살되었습니다.

이번 호국미술대전은 우리의 현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호국'과 '안보'를 주제로 '미술'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나라사랑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호국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의미 깊은 작품들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안보의식과 호국의지를 확고히 다지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전은 물론 앞으로도 호국미술대전이 더욱 발전함으로써 국가를 지탱하는 문화예술과 안보라는 큰 베풀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8일

국방위원장 유승민





국민과 군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큰 축제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술이란 아름다운 양들이 길가의 나무숲에서 노니는 것, 그게 미술입니다.

미술(美術)의 미(美)는 '큰 양' 이란 뜻이고 술(術)은 '한길 가의 나무들' 을 말합니다.

결국 미술이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자연이란 천지간에 열려 있는 물체의 조화입니다.

이처럼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군대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과 군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큰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호국미술대전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미술인들과 국군장병들이 참여하여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자동을 거루었으며 불과 3년이라는 시간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미술대전은 참가자들에게는 꿈과 열정의 기회로 국민들에게는 국가안보와 호국의식 그리고 예술을 생각하는 마당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호국미술대전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반에 활력을 더해주고 국민의 삶을 문화의 향기로 채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 강 훈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大賞 대상

회화 | 오미현





오미현
군사우편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最優秀賞 최우수상

회화 | 최길숙

디자인 | 김정곤

사진 | 지옥순

조소 | 허건

문인화 | 위고운





최길숙
 훈장



첫 각을 잘 잡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 치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작을 각이 잘 잡힌 육군 정신의 첫 발판으로 한 단계씩 성숙되어야 합니다.

 The Central Institute of National Defense

김정곤

첫 각을 잘 잡아야 한다



지옥순
전투훈련



허건
내일을 품안에



위고운
목매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優秀賞 우수상

회화 | 이명임, 흥명화, 서윤애

디자인 | 방정민, 전수민, 최진욱

사진 | 김재득, 신호, 안치영

조소 | 석위빈, 오효숙, 한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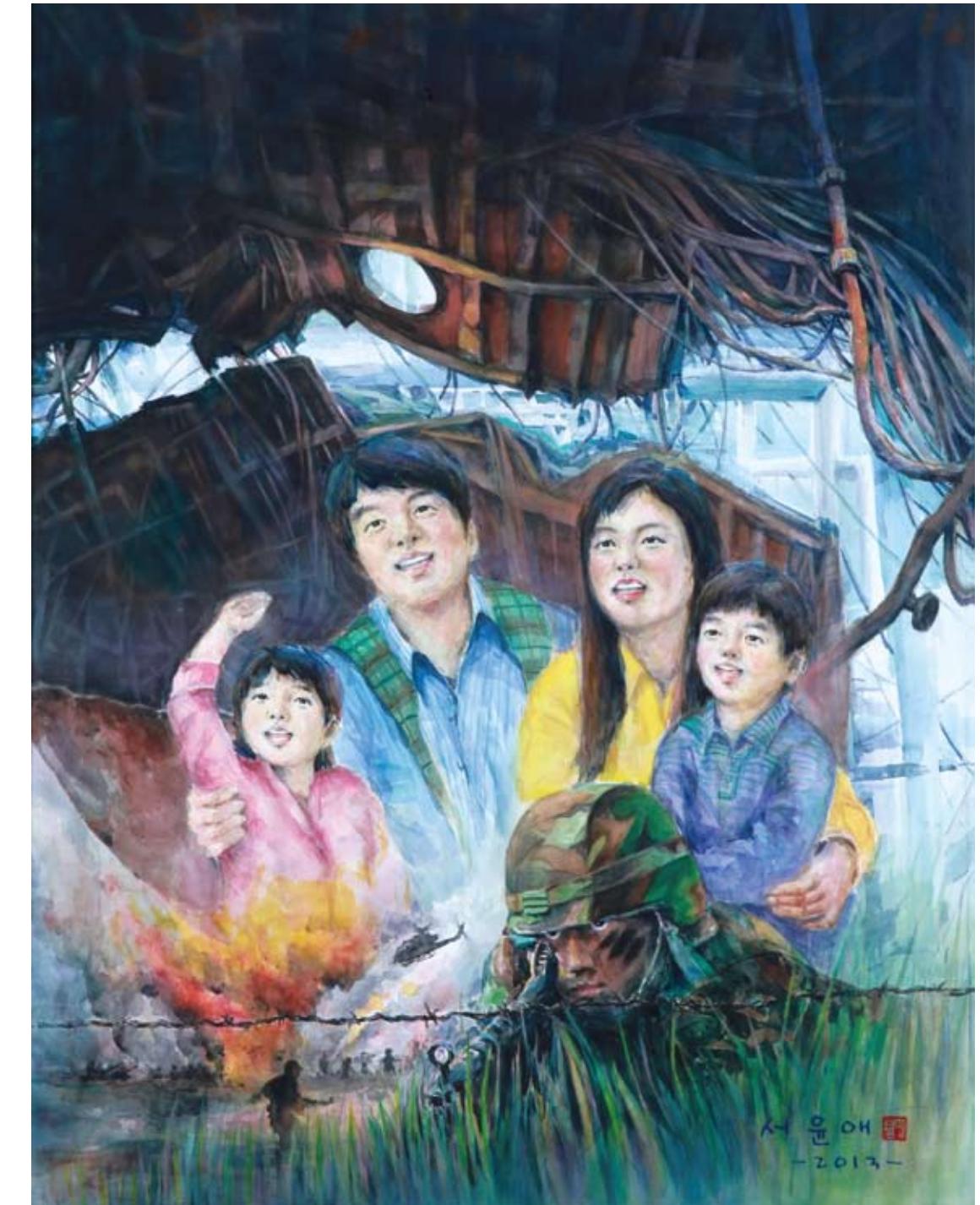
서예 | 박은경, 박영숙, 조은경

문인화 | 이도영, 이영실, 최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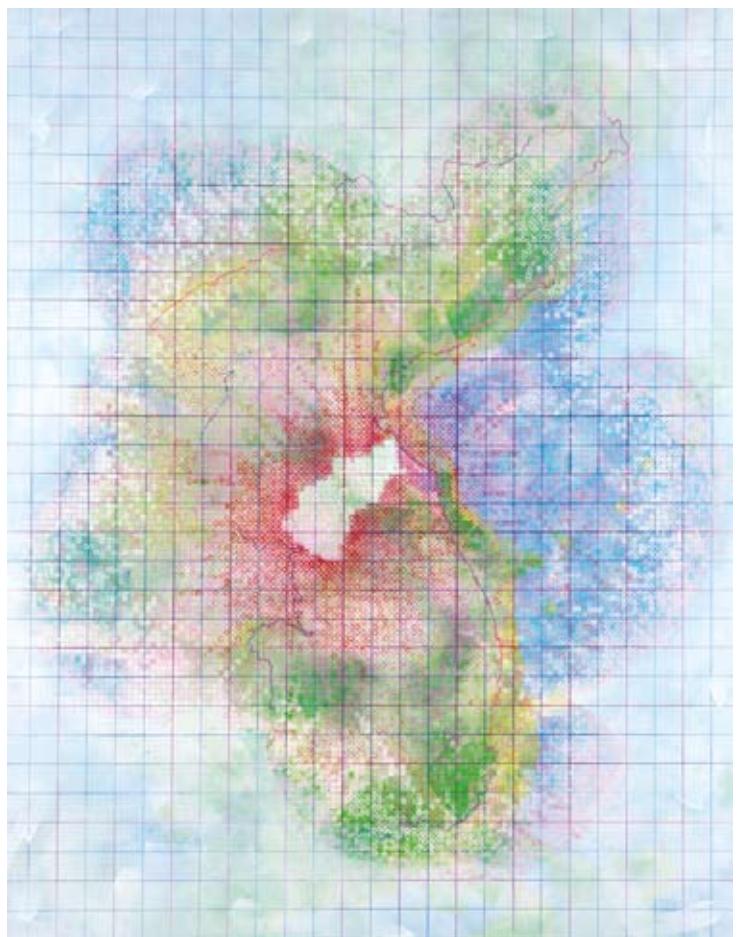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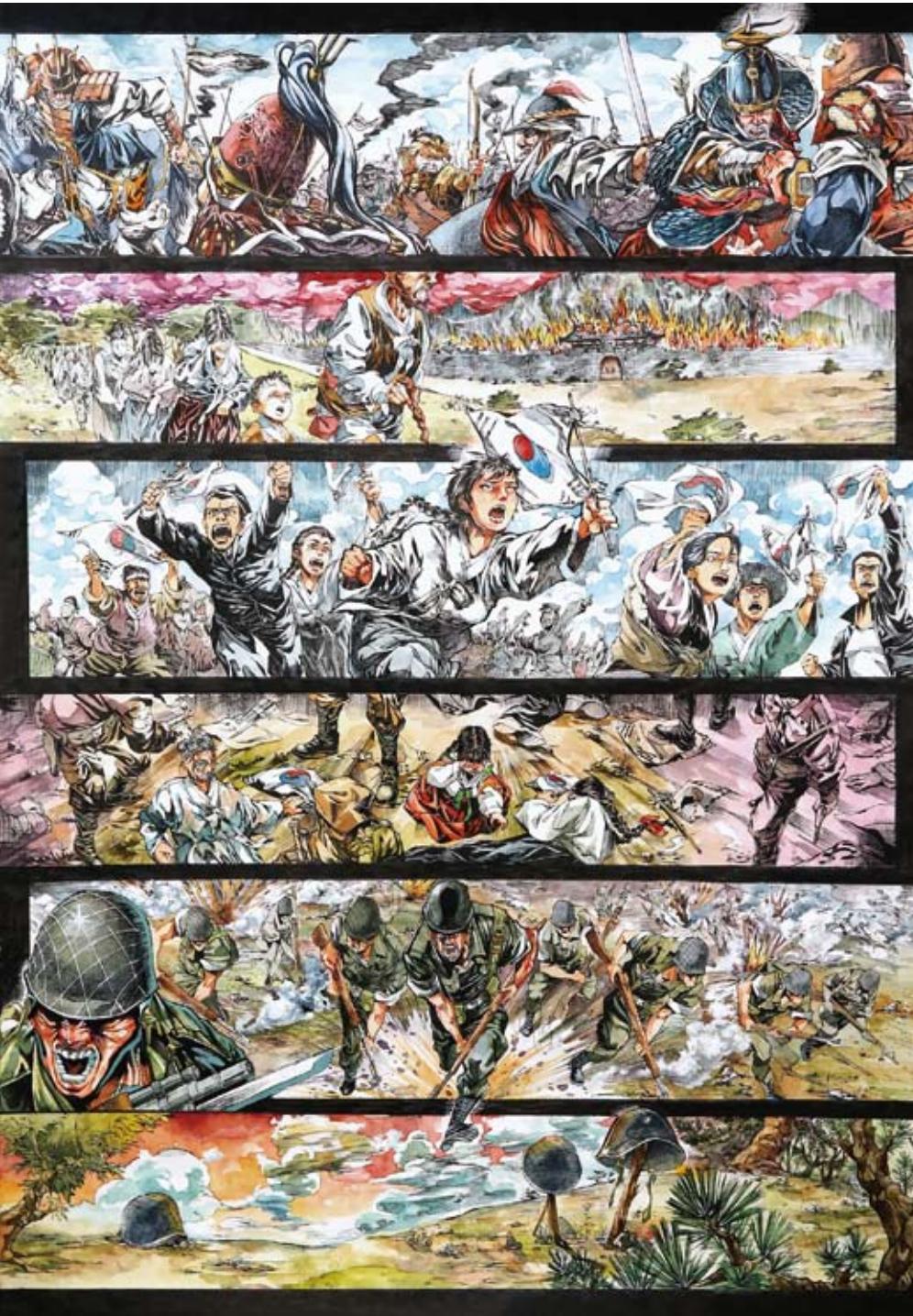
이명임
 발전과 번영의 약속



서운애
 나의 꿈 우리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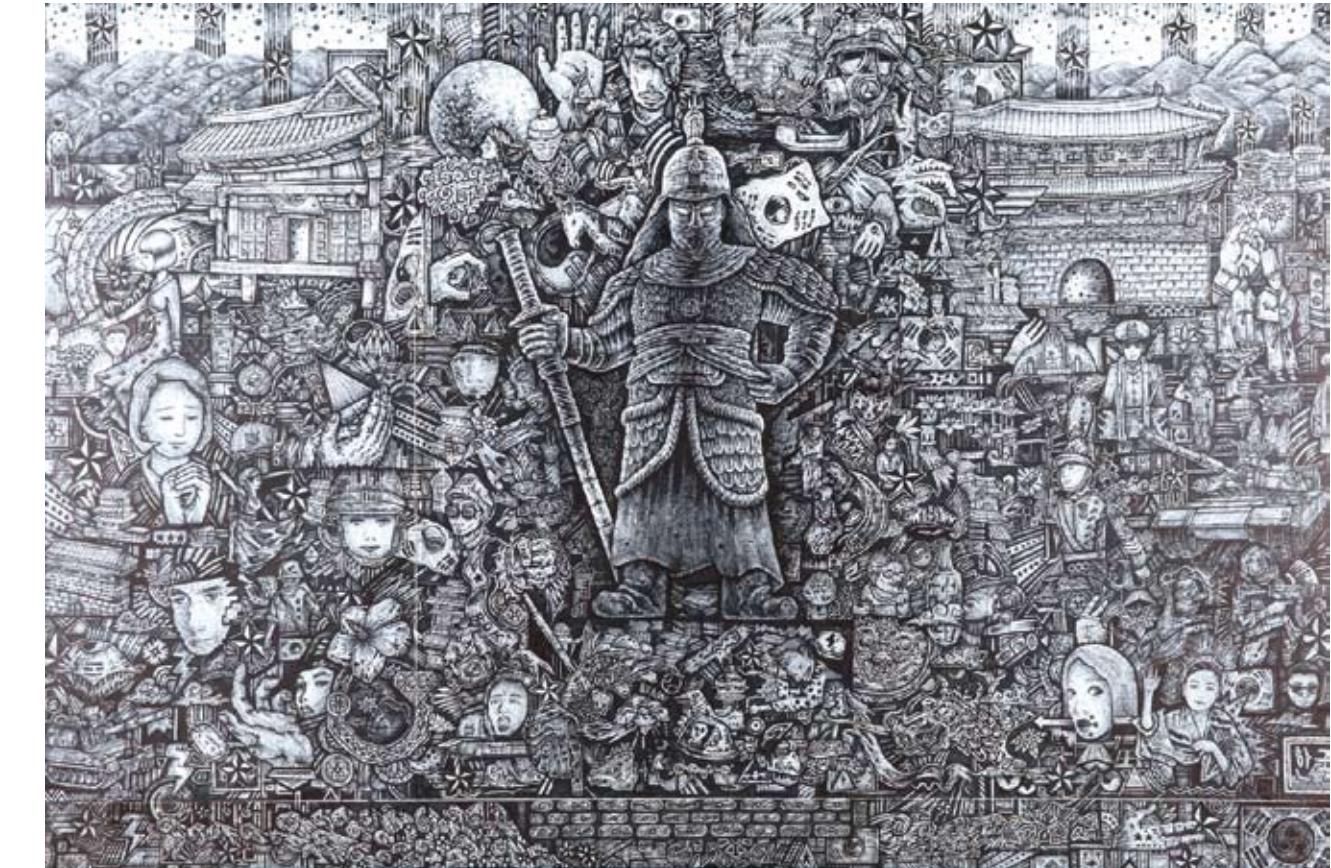


홍명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정민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전수민

영웅은 살아있다



최진욱

국군의 위상은
국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김재득
강한 육군



안치영
강한 육군의 탄생



신호
시선집중



오효숙
호국의 눈



석위빈
호국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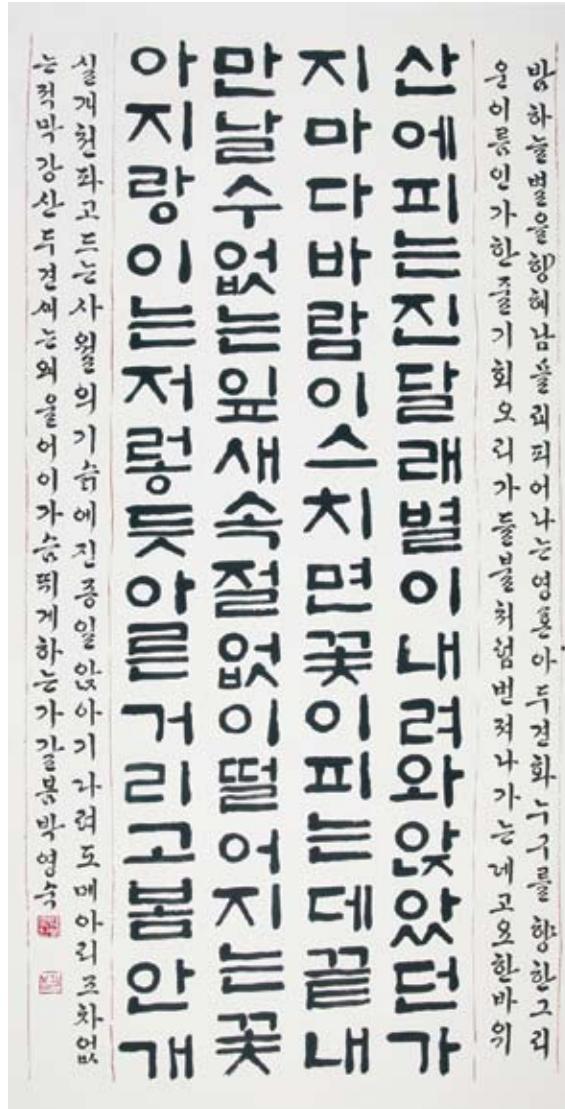


한형석
송고하다 그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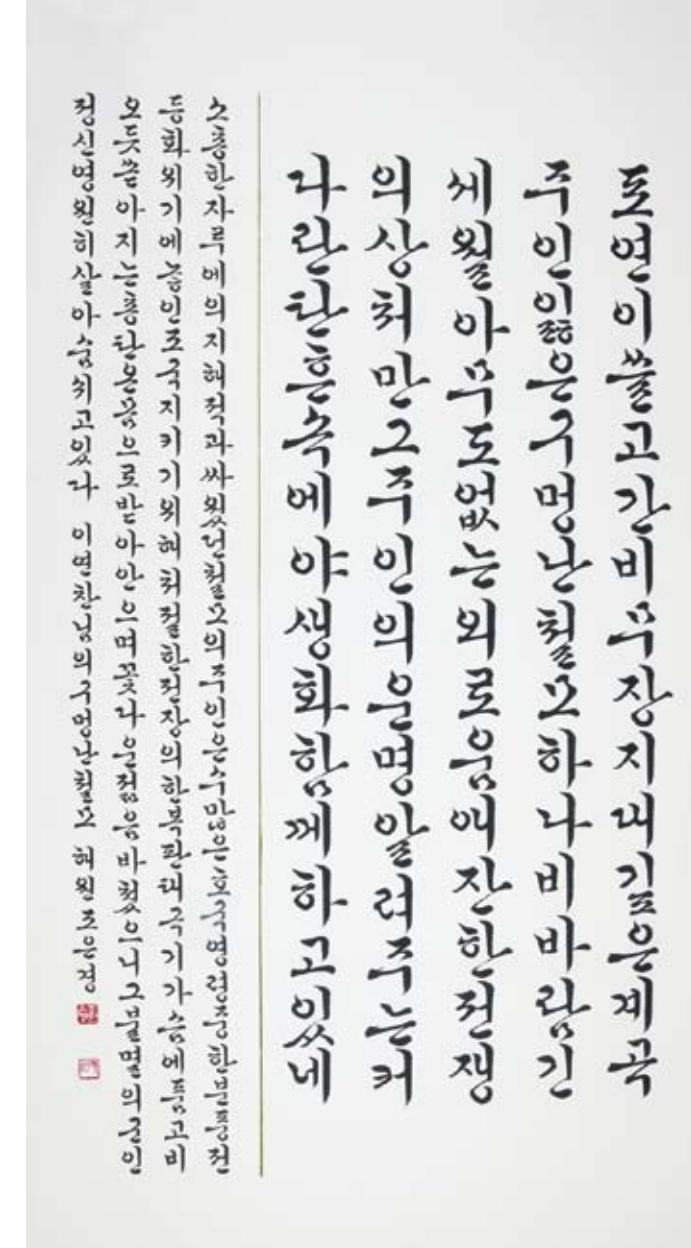
박은경
백거이 선생 詩

卷之三



박영숙
박영석의 두견화

조은경
구멍난 철모





이도영
파초



이영실
국화



최조영
조국애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特別賞 特別상

회화 | 이상민

디자인 | 공두형

사진 | 이동호

조소 | 김철현

서예 | 김영필

문인화 | 이상현





이상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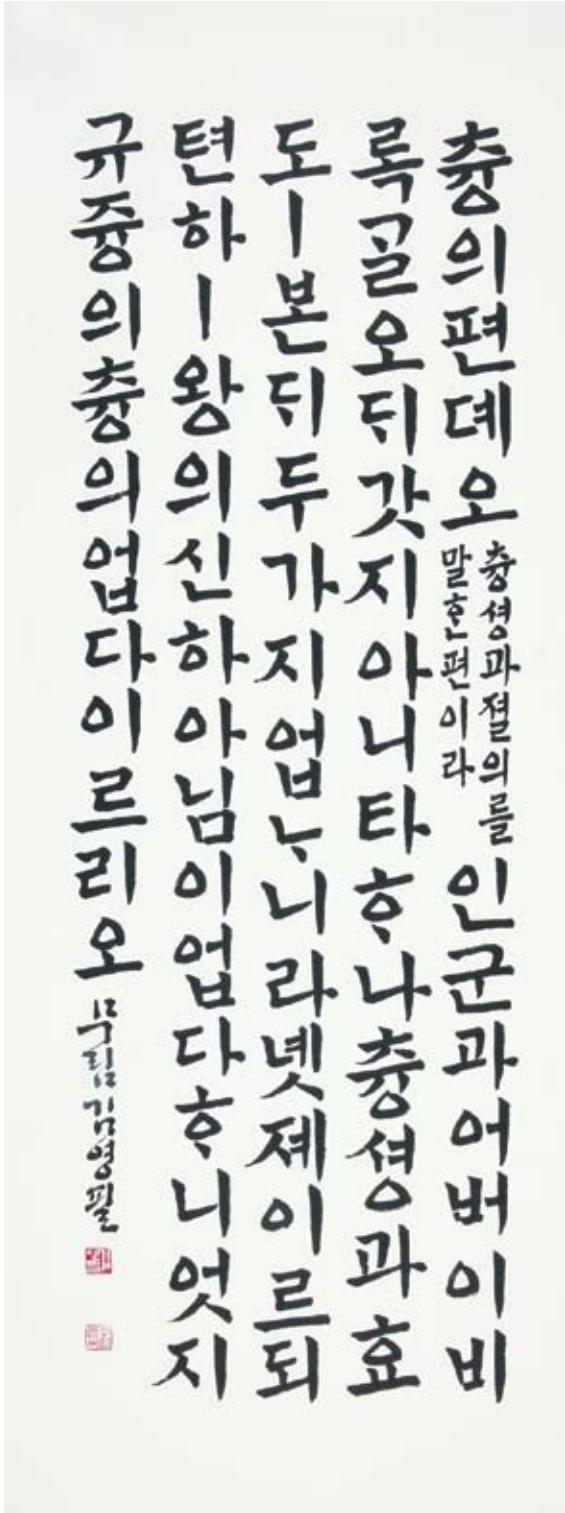
공두령
대한민국에 취하라



이동호
결단코 처단하리라



김철현
충용(忠勇)



김영필
 여사서 중에서 가려씀



이상현
 국화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特選 특선

회화 | 신중목, 최민근, 오건용, 박장호, 송준영
디자인 | 박창연, 엄이주, 천태윤, 최병현, 황진희
사진 | 고운호, 이영수, 이용철, 임영식, 정민자
조소 | 김락균, 이은영, 정은송, 지휘진, 허혁준
서예 | 권현영, 유기원, 유명기, 김진혁, 윤태위
문인화 | 김영윤, 박은숙, 박철규, 이금순, 조강욱





신종목
전투



최민근
연(戀)



오건용
여정 - 휴식



박장호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송준영
전투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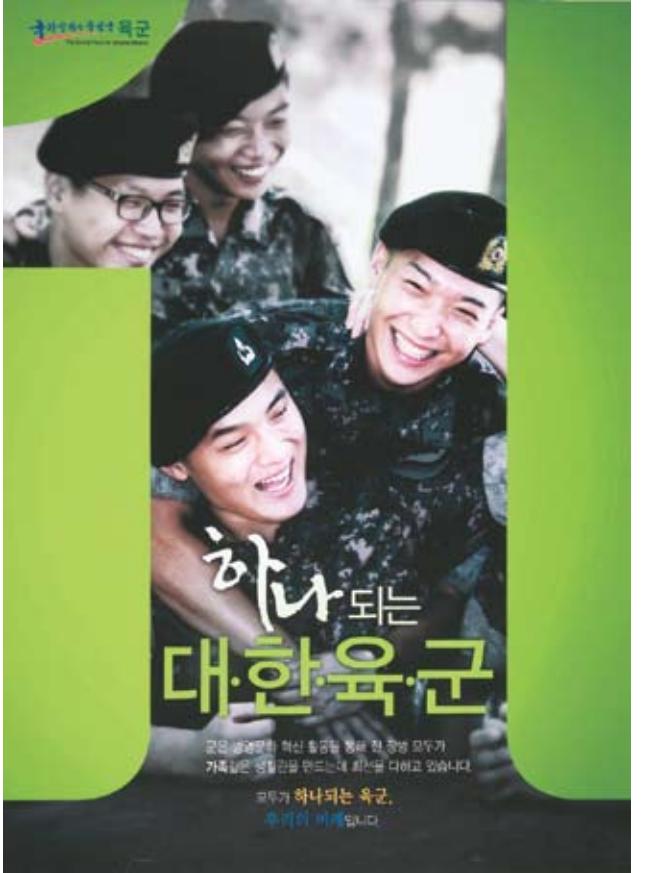
박창연
그들이 있기에



엄이주
희망의 무궁화



천태윤
메시지



최병현
 하나되는 대한육군



황진희
 강하고 스마트한 전투형 강군 우리육군



고운호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이영수
 사막의 폭풍작전



이용철
 철통경계



정민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임영식
 적이 도발하면 즉각 격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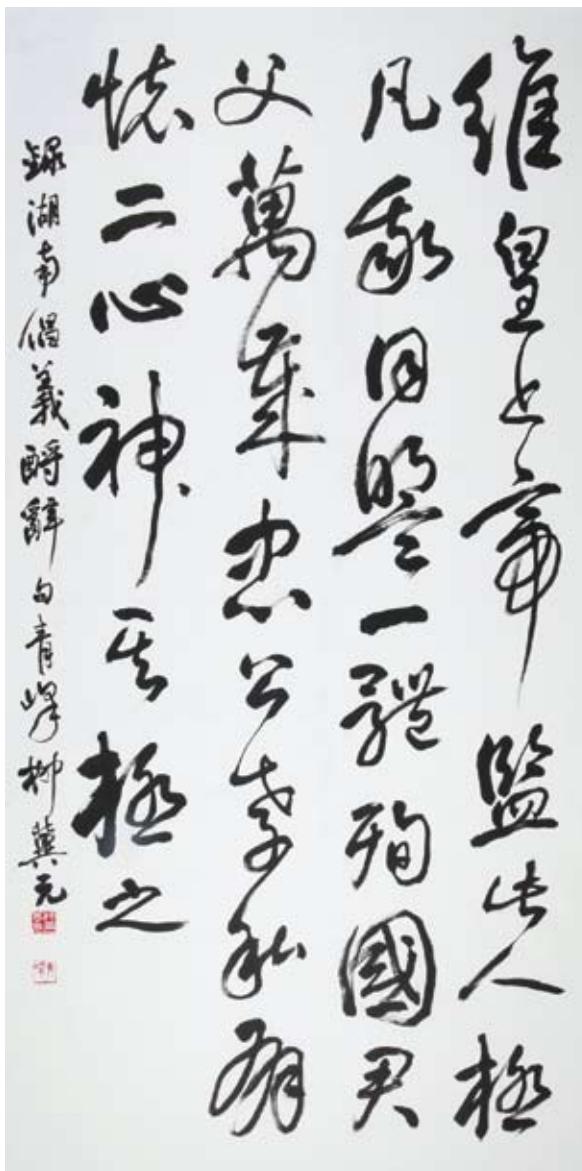


김락균
 돌격!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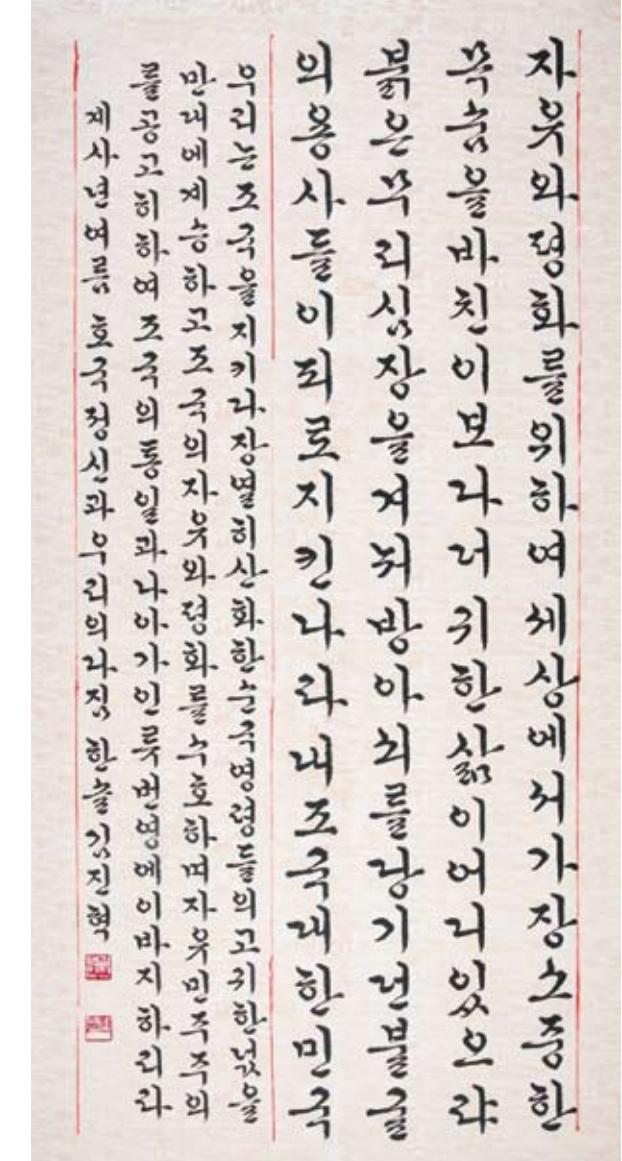
권현영
천자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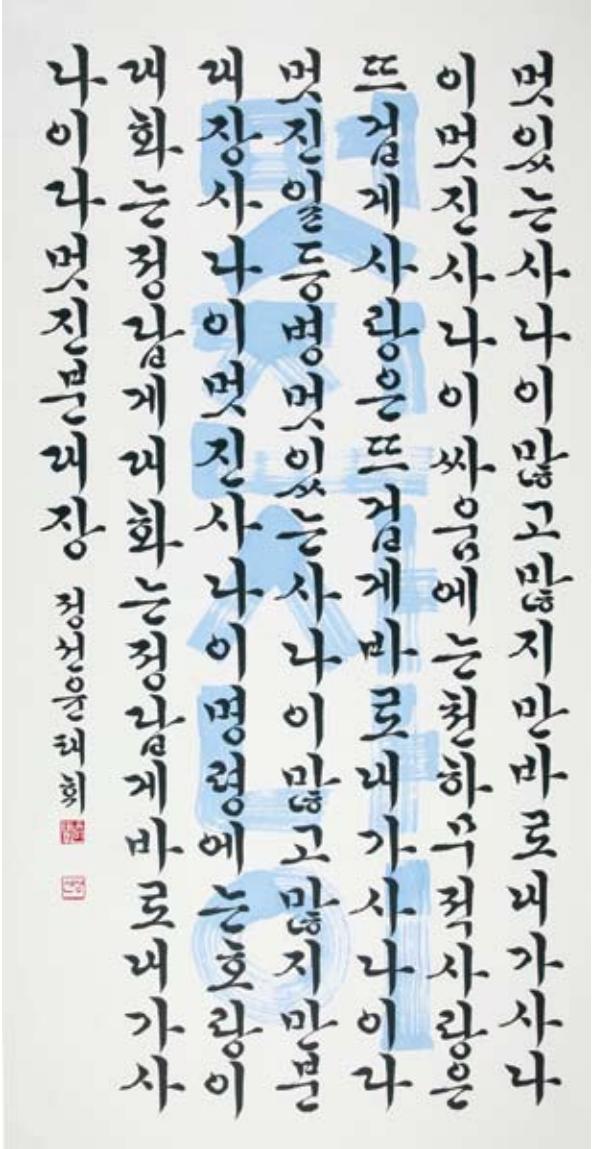
유기원
호남창의 뇌사구



유명기
손자병법 허실편구



김진혁
호국정신과 우리의 다짐



윤태희
 멋진 사나이



김영운
 종려



박은숙
 묵목단





이금순
국화



조강옥
무궁화와 소나무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入選 입선

회화 | 고명희, 김진우, 이순자, 이지훈, 정여진, 최경숙, 강승진
김영원, 김진영, 김현우, 문종범, 문주연, 박종세, 안덕관
유승민, 정양운, 권기연, 박세광, 성규진, 송준호, 안순보
양이중, 이규옥, 이지혜, 최용한, 한영식

디자인 | 강영광, 김대영, 김동겸, 김선엽, 김지혜, 박솔규, 오세혁
왕조현, 유호성, 이선흥, 이성희, 이호준, 임덕영, 임유빈
정원준, 정종원, 정현민, 조범희, 조상혁, 주현준, 최서환
한중수, 함형선, 홍승원, 황영식

사진 | 김명식, 김명주, 김송호, 김업수, 김영배, 김영선, 김종각
김철, 류승우, 민영부, 박병준, 박병훈, 곽풍영, 배정옥
백형실, 서능원, 손호덕, 엄준영, 오상기, 우수창, 유경남
유길상, 이광수, 이인제, 전재엽, 전찬호, 정승우, 정진욱
조성율, 하영태, 한기성, 홍찬기, 황문자, 황태성

조소 | 김동겸, 노재원, 박동욱, 박삼영, 임한규, 조규현

서예 | 김성호, 김인영, 박성호, 이광호, 이인덕, 이일태, 이재영
정유정, 조다엽, 최문수, 최선일, 최용호, 황호인, 강현주
김영자, 김정자, 김종원, 노복임, 박태선, 서정숙, 순승기
신현애, 이명미, 이주택, 정갑순, 한진태, 권경선

문인화 | 강성미, 김경근, 김경훈, 김순년, 김연동, 김의옥, 김재현
김주한, 김현민, 김현주, 노사선, 박경화, 박춘옥, 박형수
서인환, 서자은, 안정희, 옥윤덕, 윤평한, 윤희, 이상구
이영광, 이용, 이일태, 이정민, 이정옥, 임무순, 장재훈
정홍길, 조승현, 지순애, 한오석



고명희
평화의 길



김진우
집중



이지훈
흥남대탈출 1950



정여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순자
무궁화



최경숙
해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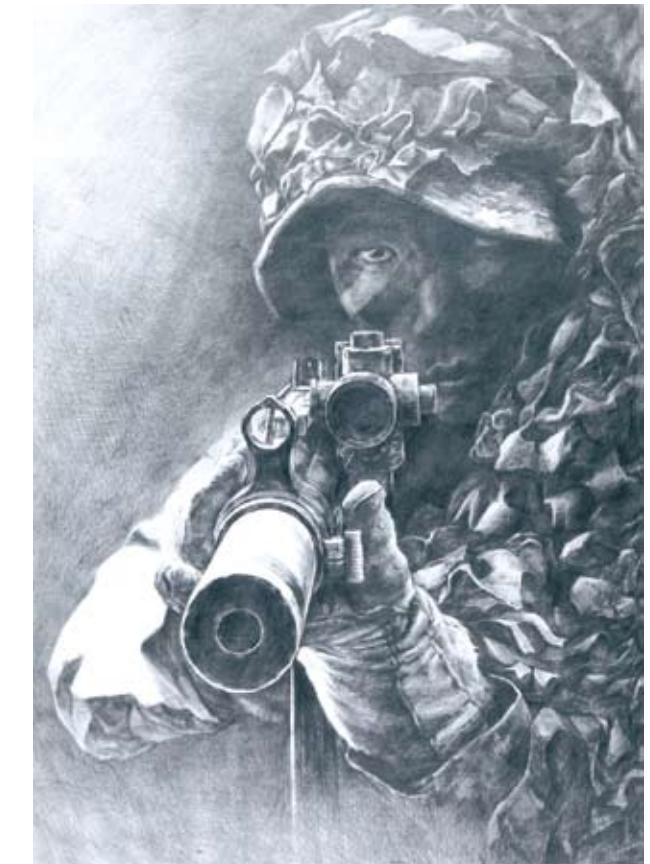
강승진
바라보다



김영원
조국의 수호자들



김현우
이등병의 패기



문종범
용맹한 전사



김진영
The Day 20101123



문주연
앞으로 앞으로



박종세
진동



안덕관
인천의 환희



유승민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정양운
지리산, 우리의 산하

권기연
너를 그리다



박세광
회상



성규진
 충성의 의미



안순보
 흔적의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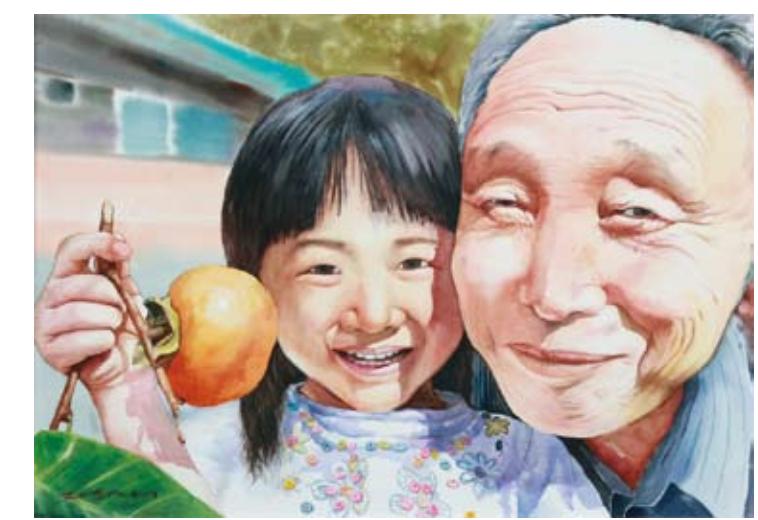
양이중
 길



송준호
 호국, 계승되는 위대한 의지



이규옥
 이름모를 용사님께
 이 평화를 바칩니다



이지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



최용한
현화



강영광
군인



한영식
경복궁



김동경
무궁화가 활짝 꽂을 수 있는 이유



김대영
대한민국의 히어로!



김선엽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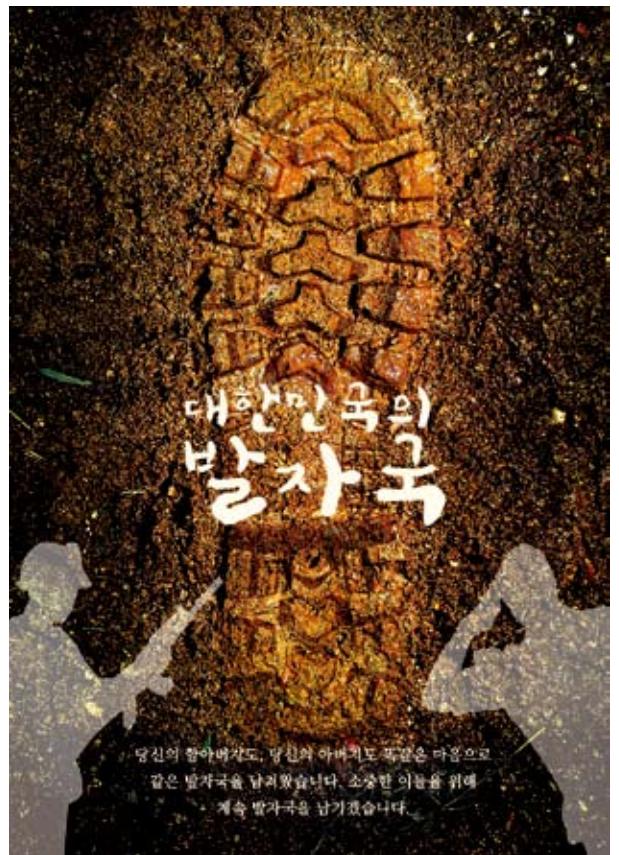
김지혜

당신의 편안한 잠자리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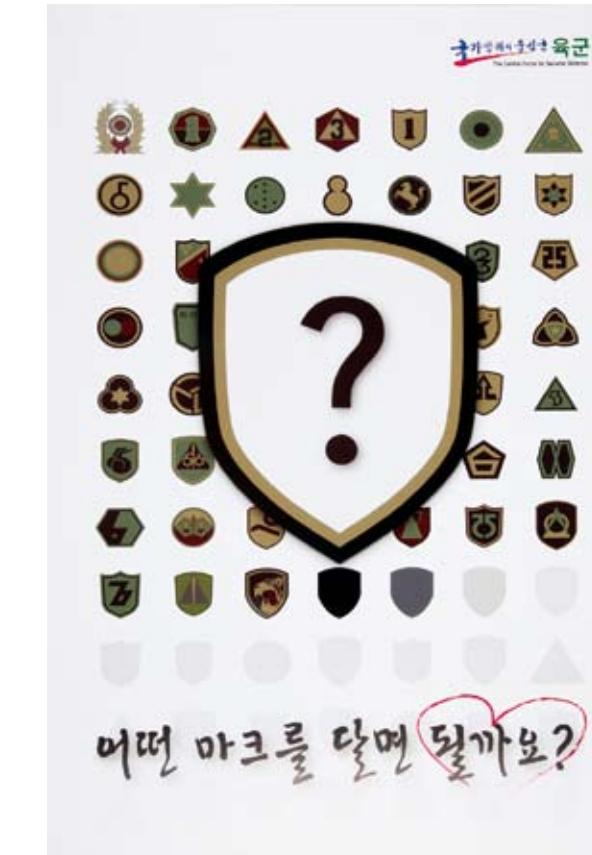
오세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박솔규

대한민국의 밭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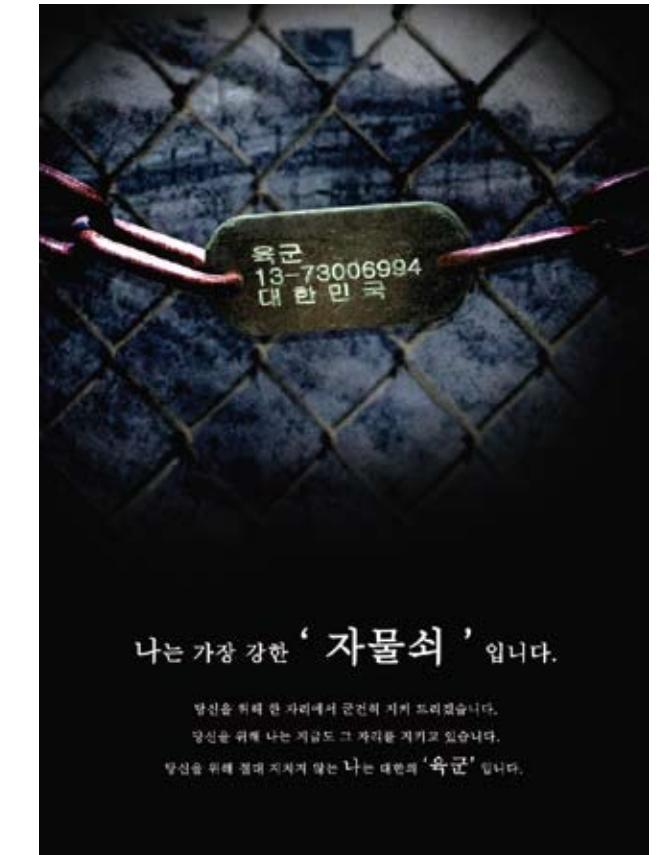
왕조현

어떤 마크를 달면 될까요?



이선흥

지켜왔고, 지키는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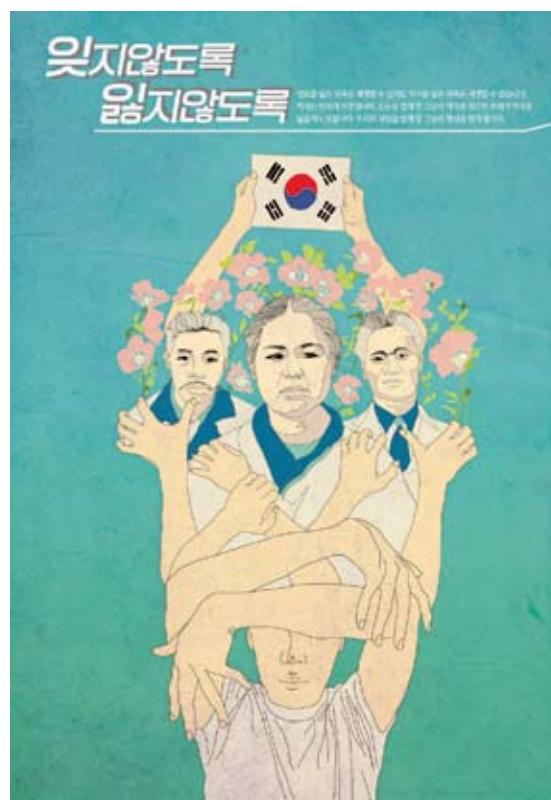
유호성

나는 가장 강한 자물쇠 입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국민과 놀 가까운 곳에서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이성희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임덕영
잊지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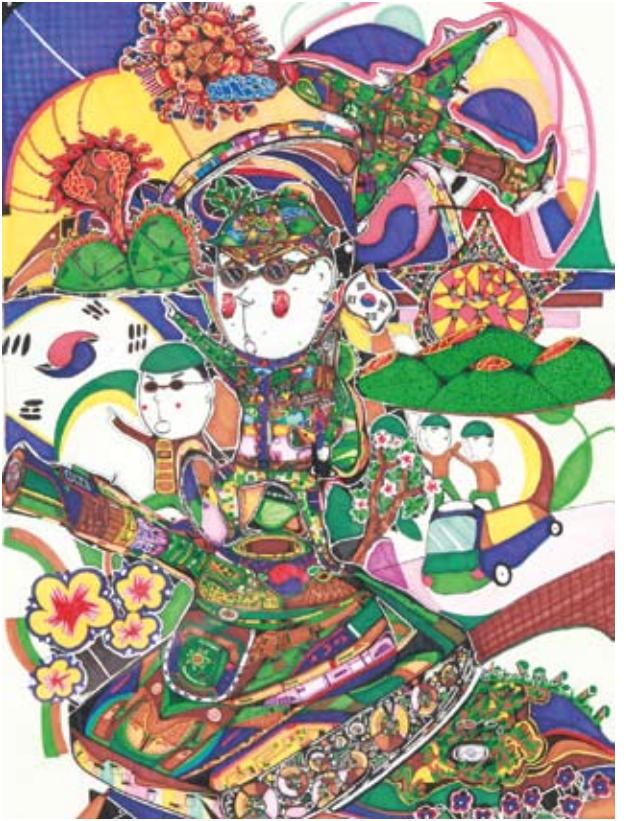
임유빈
깨끗히 피고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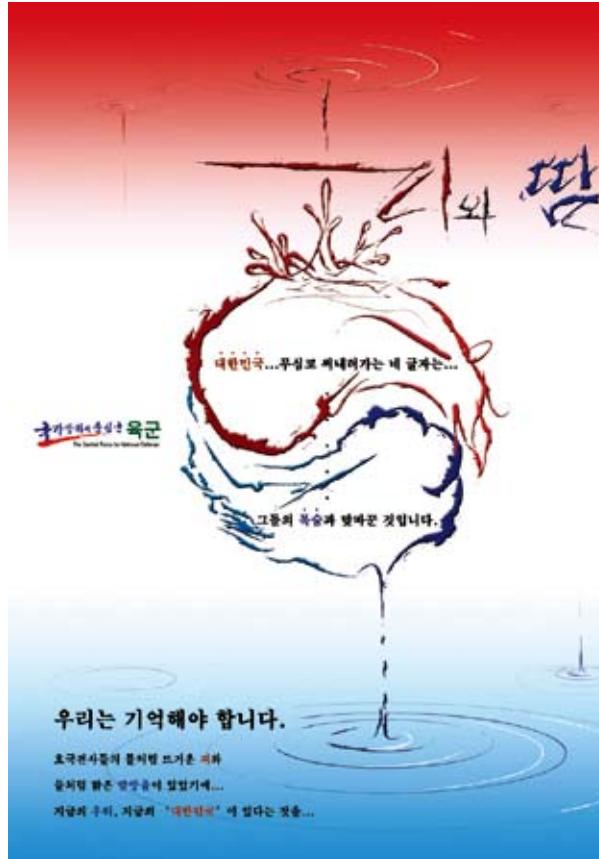
정원준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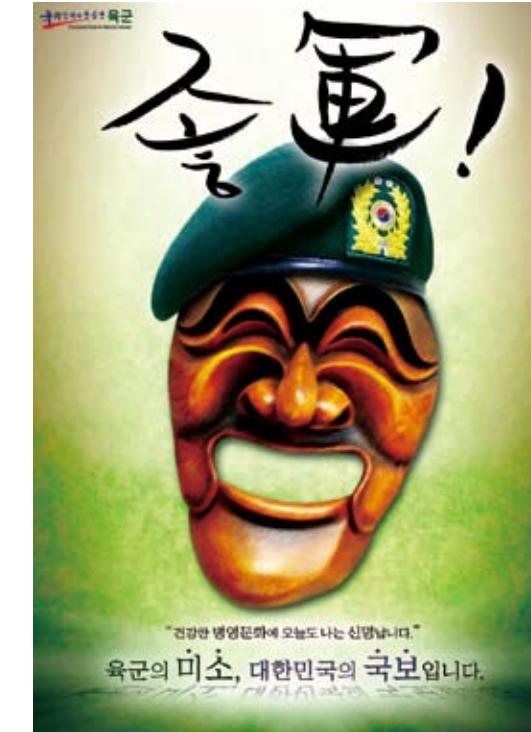
정종원
1등 슈퍼히어로



정현민
영광스러운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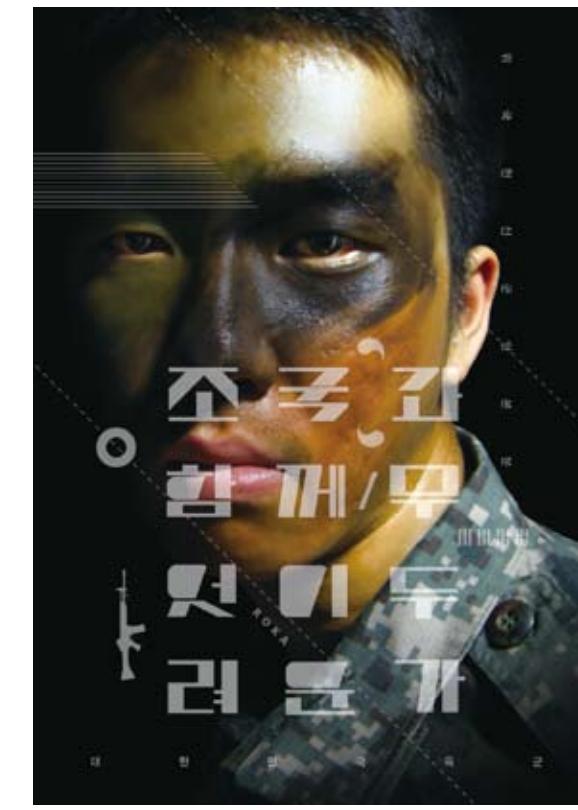
조범희
피와 땀



주현준
육군, 좋군!



조상혁
대한민국을 대표하겠습니다.



한중수
조국과 함께 무엇이 두려운가



최서환
훈화조



합형선

당신의 희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0년 평화의 대한민국
당신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황영석
愛



홍승원

군벤져스 –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우리의 수호신
대한민국 국군



김명식

한 사나이로 태어나서



김명주
그리움



김송호
멋진 사나이



김업수
 특공무술 병맥주 격파



김영배
 섬김의 자세



김영선
 나도 여전사



김철
 수류탄 투척



김종각
 해상침투



류승우
 새로운 시작





서능원
격파



손호덕
역사관 전면



엄준영
사랑하는 팀원들과 어느 따사로운 봄날



우수창
수해복구 대민지원 (비에 젖은 전투화)



오상기
국민과 함께하는 육군



유경남
가스! 가스!



유길상
조국수호



전재엽
신병 수료식



이광수
전우야



정승우
전우애



이인제
대민지원



전찬호
전쟁 영웅과 사관생도의 만남



정진욱
 도하 훈련



조성을
 통일기원



하영태
 충성



한기성
 그들이 있었기에...



황문자
 사람으로



홍찬기
 적을 찾아라



황태성
200Km행군, 그리고 전우애



박동욱
정의의 용사들



김동겸
겨레의 빛 최강 밀풀



노재원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임한규
근무중 이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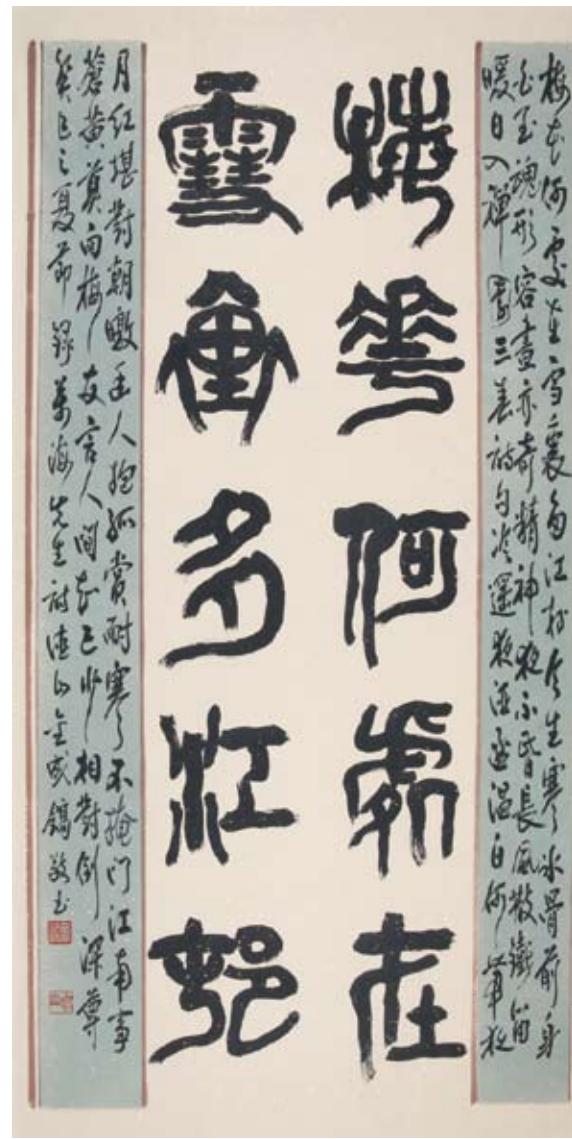
박삼영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조규현
영웅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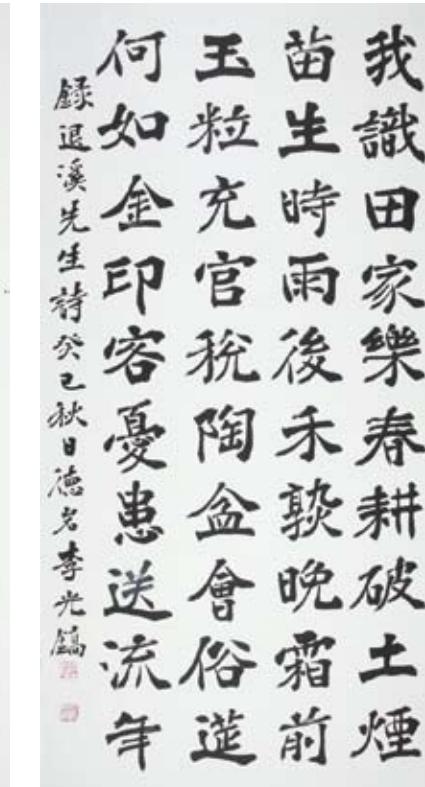
김인영
서해, 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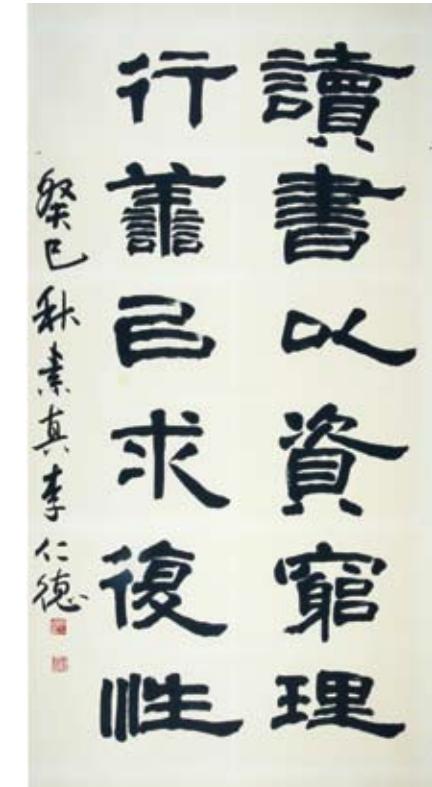
김성호
매화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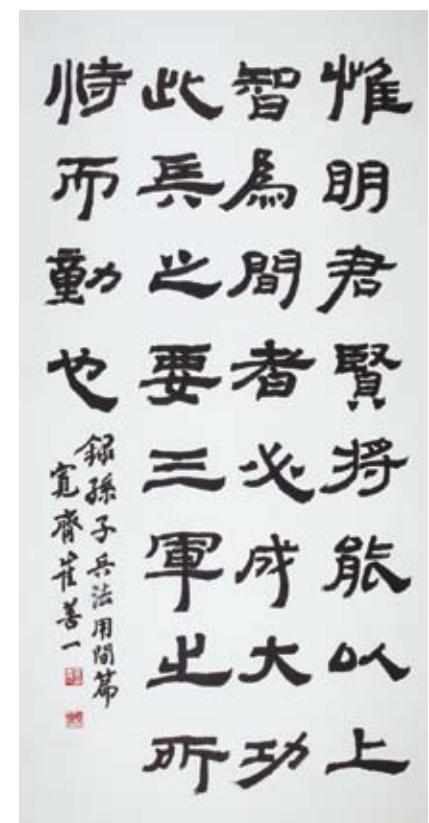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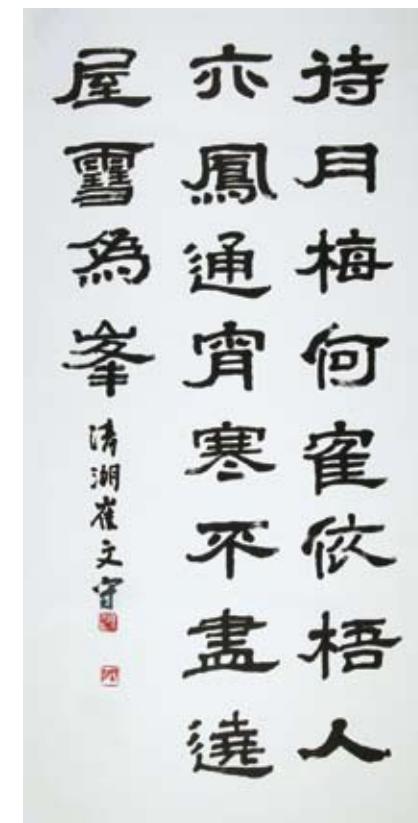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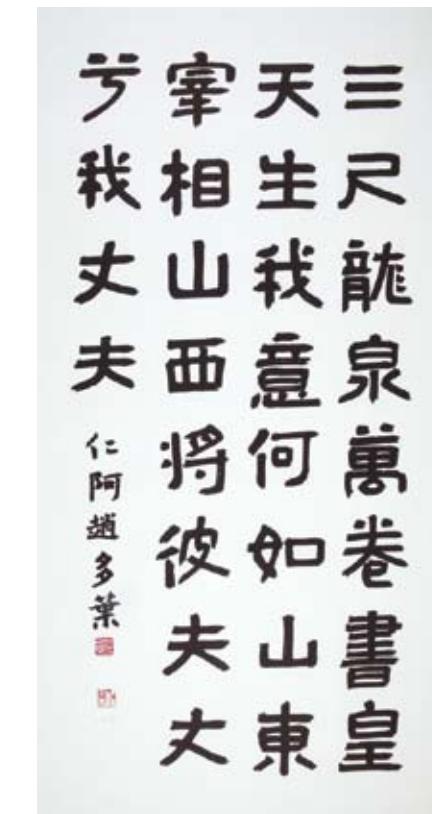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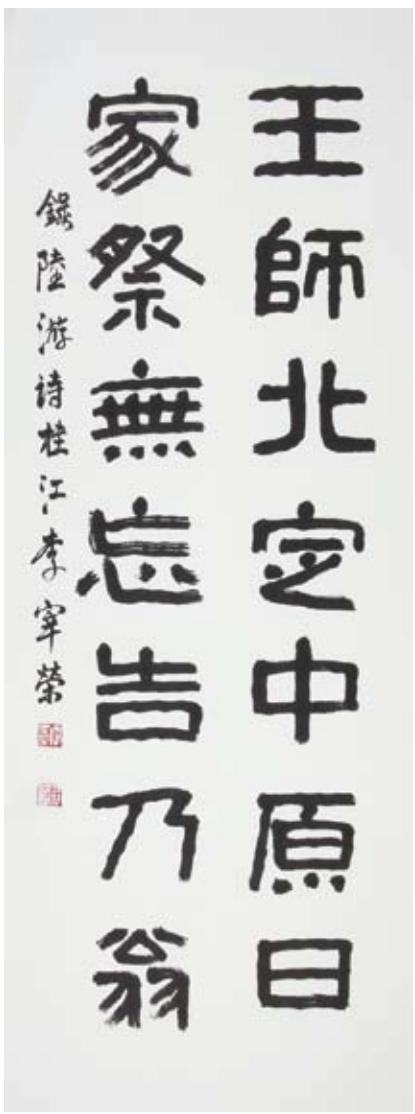
박성호
운명



이광호
퇴계선생 詩



이인덕
율곡선생 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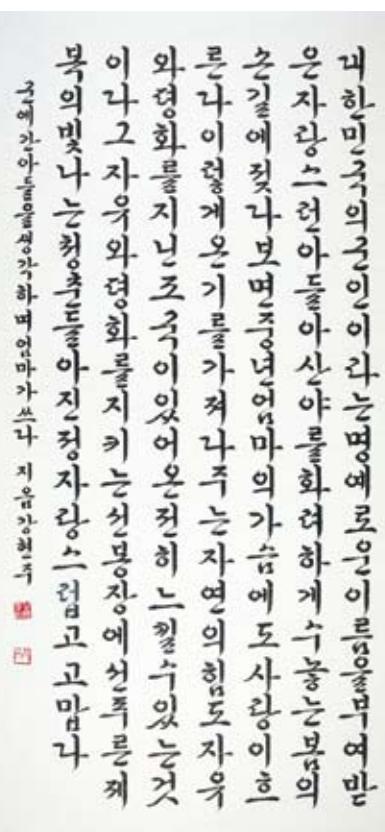
최용호

을지문덕 장군 詩



황호인

안국가정사직 진충갈려 사생이지
(安國家定社稷 署忠竭力 斯生以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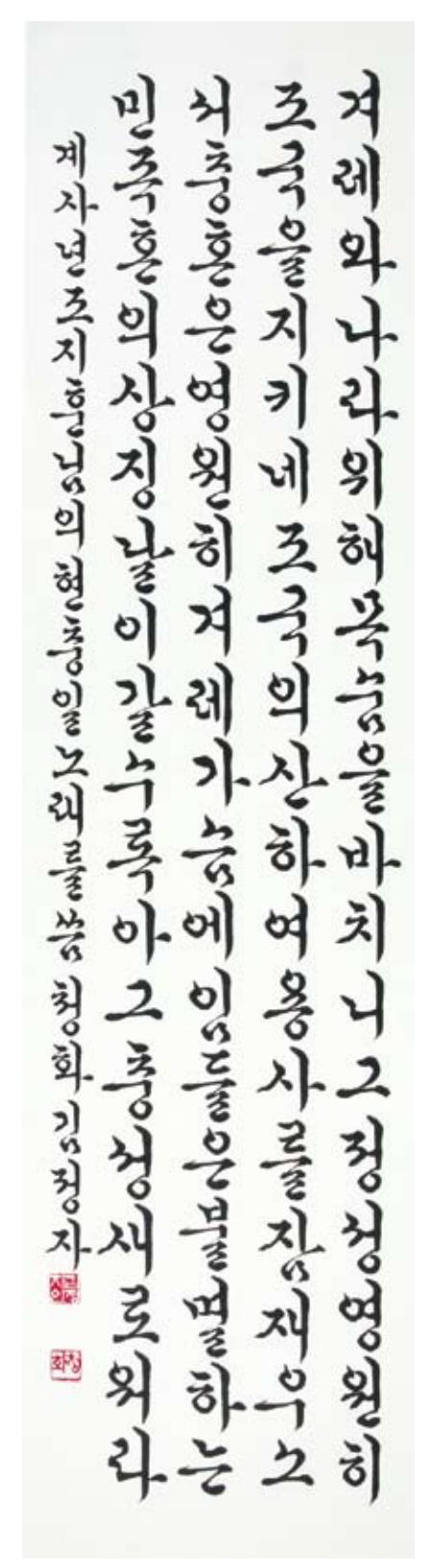


강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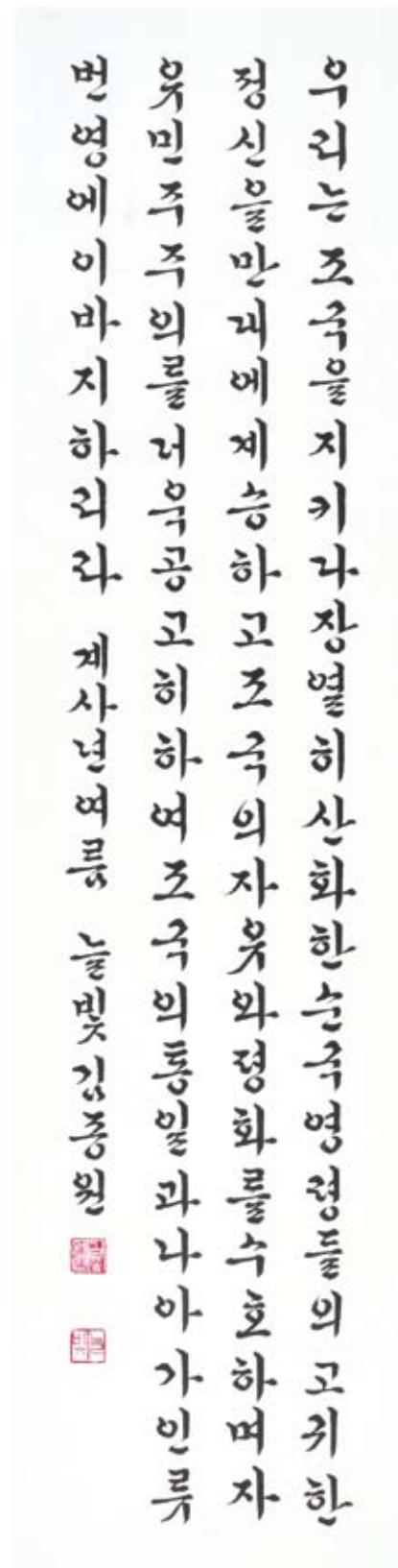
군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김영자
나의 조국



김정자
현충일의 노래



김종원
우리의 각오



내가 날의 청학에 가까워 했을 뿐 아니라 가 날을 청학하고 것 같았을 뿐이 아니라 학자 유품의
복원을 위하여 세상에 활동을 펼쳐 활약하고 유품의 강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조각화나
오직 한없이 가지 않고 시로는 것을 놀라운 그림화의 힘
이나 그림화의 힘을 드러내자 자신을 험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날에게 험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자 주인의에게 비죽한 것은 무현도 경제
력도 아니며 많아도 종종은 자영과 학의 힘이나
그러나 일제 철권으로 면밀제의 자영과 학의 힘은 가지 않고 철권에 허물어 가기에는
나를 험복하는 것과 같은 경지에 면밀제의 자영과 학의 힘은 가지 않고 철권에 허물어 가기에는

노복임
구선생의 어록
(1 나이 소원)

김구선생의 어록 (나이 80)

동쪽엔 심해 선박의 하점선을 풍드로 할거 나 춤수로 꿈
이 워내리던 정해의 예스부리 방울 뛰어 애 달고 구도의 막
내내의 흐저한 모습이 되었으리니 창망한 물구비에 꿈
시에 지워질듯은 심스레 떠있기에 동해쪽 젖바람에 향
시 자념의 머리 곱게 찢기 우그지 나새나물이 그물으로
안향하는 그리운 마음에 쉼새 없이 춤랑이 드포팅왕 따라
밀리어 오는 듯하건만 멀리 도죽의 사적의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아아이
렁게 드간 절함이 어 운집이니라 암자에 펴여서

박태선
유치환 (울릉도)

유치환 (울릉도)

마모정제단

서정숙

짜사나이

백두산의 둑을 차기 이 망을 구호하고 헌 나상
의 노랫말이 세상에 지어지게 되었네. 그 화꽃 되고
쳐도 좋거呵. 그리고 사는 데에도 살아 있었네. 늘
기로. 그려서 려여로. 아침 해가 동해에 떠
오르며. 그 광활한 속에서. 세상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 그들의 땅에 살았나니. 화국사 이리고
그 조상. 그 땅에 살았나니. 화국사 이리고

손승기

故 박정희 前 대통령 (나의 조국)

신현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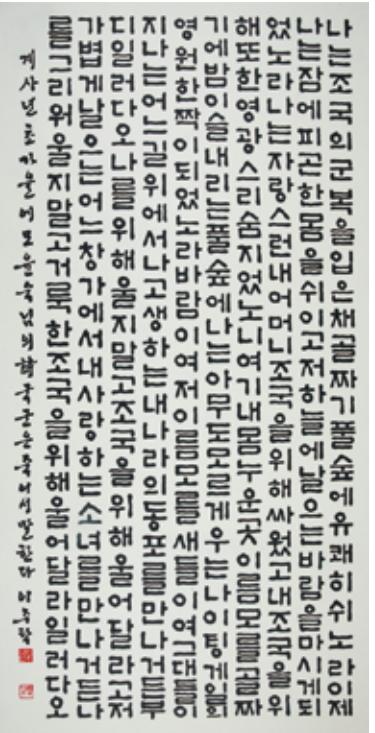
국군은 줄어서 말한다

부모님들이 죄송한 기운을 띠고 있으니 이
제가 끌어당기고 이 힘을 나눴던가 했더니 그게 두 송으로 일찍 이해와 날을 도았고 한마디 말들이 바로 하늘과 광을 창했네 가슴에 가득한 지혜와
용맹으로 오로지 나라의 하나님 시대였던 이 말나마 우승에 있었네 드조창을 드나들며 장
수와 재상을 견뎠으니 척을 놓지 않을까 자이로
공업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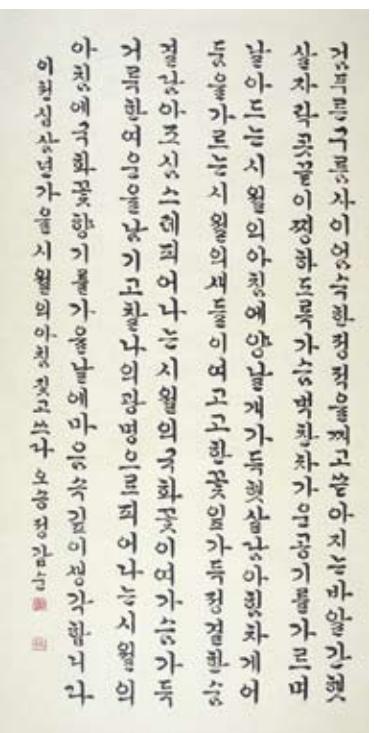
이명미

파산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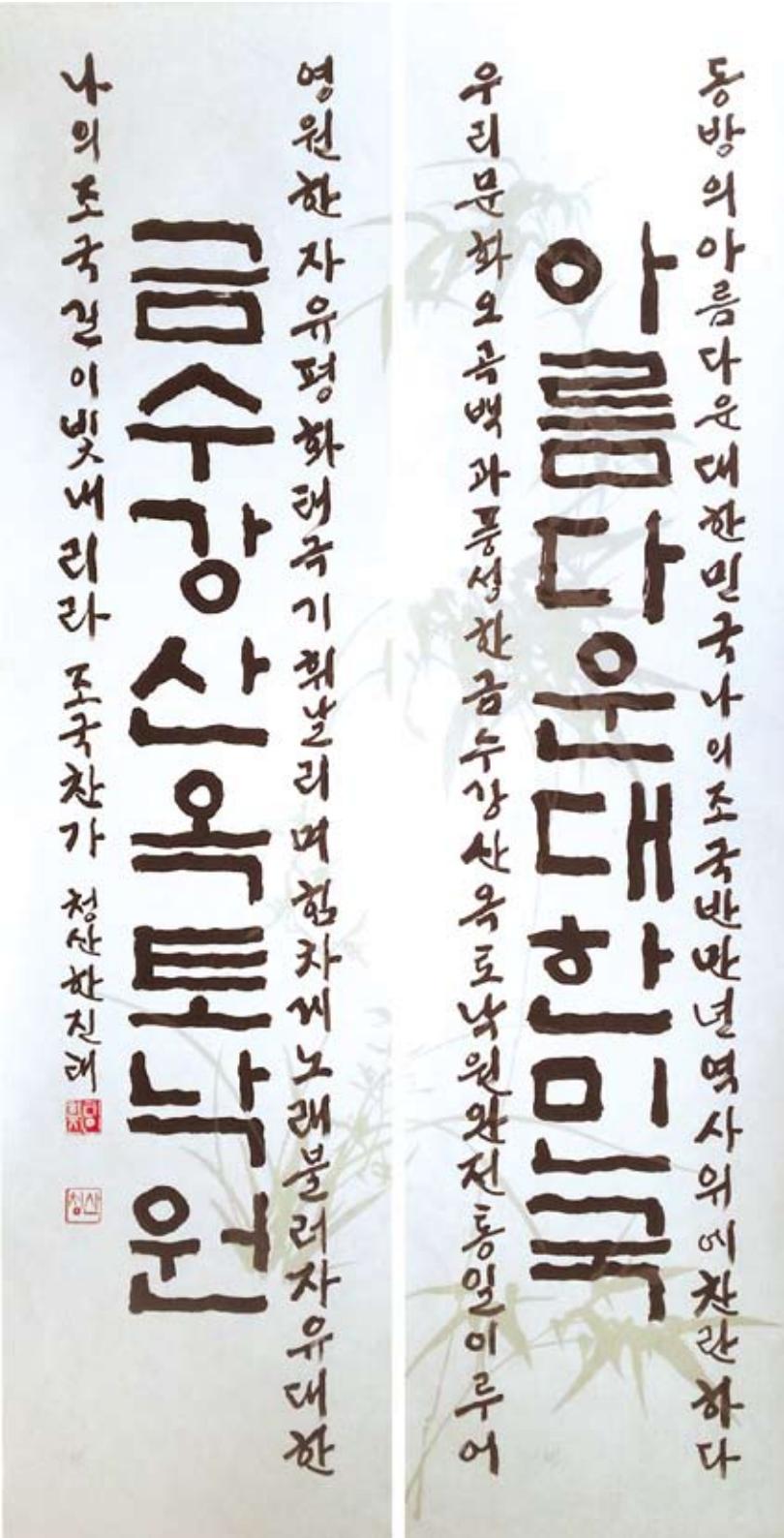
(운곡 원천석 선생님 詩)



이주탁
나는 조국의 군복을...



정갑순
시월의 아침



한진태
조국찬가

동방의 아름다운 대관 백국과 이 조국 반안 역사 위에 찬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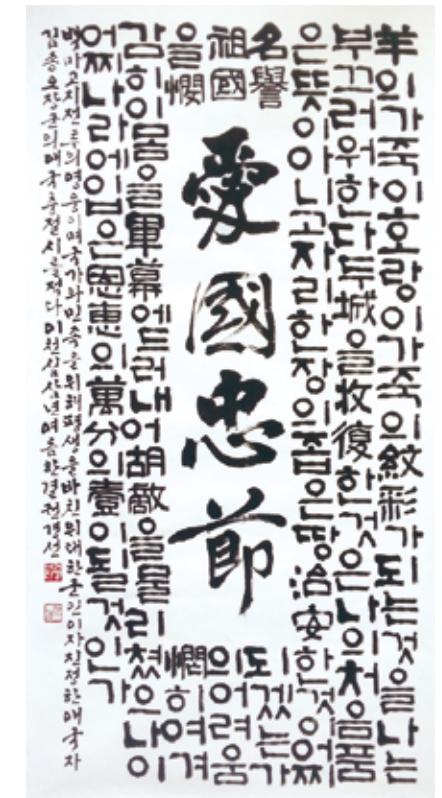
아름다운 대관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육로 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 유령화 려국 기회를 리며 침차지 노래 불러자 유대관

아름다운 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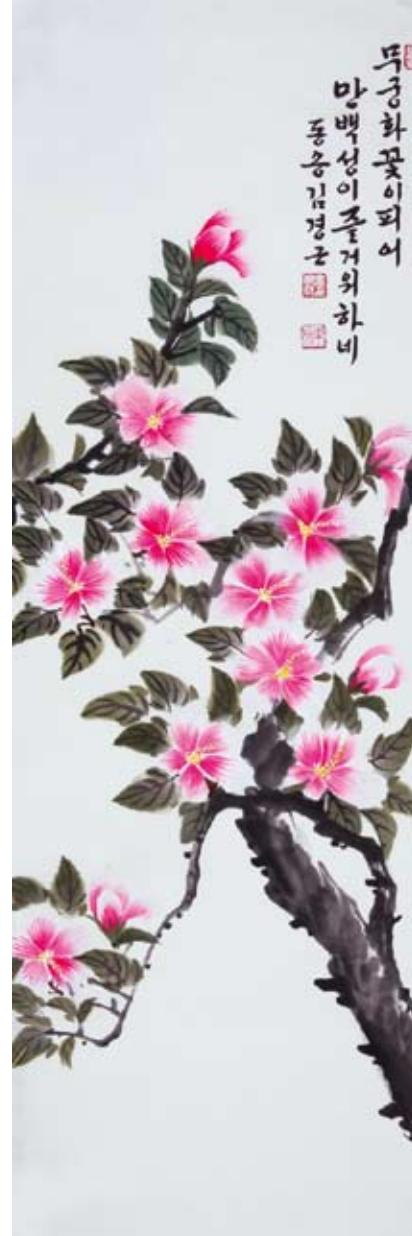
나의 조국을 이 빛내리라 조국찬가 청산한진태



권경선
김종오 장군 詩



강성미
난



김경근
무궁화



김경훈
노송



김순년
부엉이



김연동
난

清香美里
淡已無節
梅山



김의옥
모리



김재현
파초의 꿈



김주한
매



김현민
푸른마음



김현주
목난



노사선
근화향로삼천리단수



박경화
연(蓮)



박준옥
비목



박형수
석난



서인환
홍매



서자은
국화



안정희
황국



옥윤덕
묵국



윤평한
묵난



이희
포도



이상구
모란



이영광
창포



이용
목매



이일태
목죽



이정민
목단



이정옥
포도나무



임무순
해바라기



장재훈
조국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



정홍길
장미



조승현
목국



지순애
난



한오석
조롱박

2013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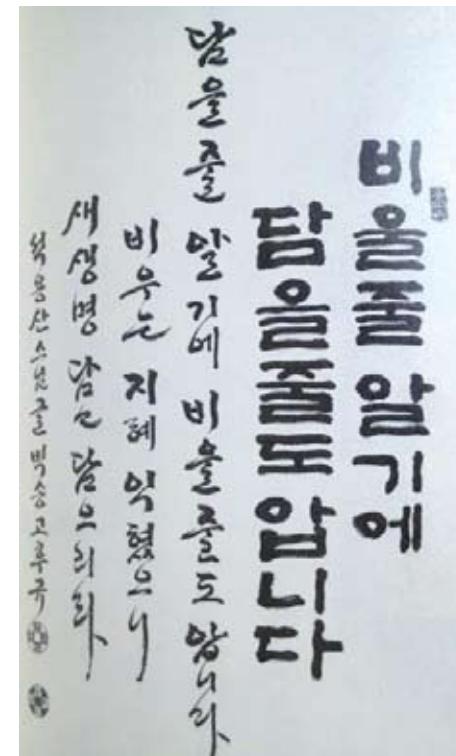
고후규
공진모
김영삼
노현지
박영길
양성모
윤규현
이평수
조명동
최창길
홍성모
황치봉





고후규

- 現 벽송서예학원 원장
-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 및 심사
- 한국서예협회 서울지회 부지회장
- 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석용산 스님 글



김영삼

- 現 (사)한국미술협회, 문인화협회, 문인화 연구회 등 회원
- (사)한국미술협회 문인화 분과위원장 역임
- 동아미술상 수상(91년, 동아일보사)
- MBC 드라마 “구가의서” 등 7회 협찬
- 한국예술원 교수,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봄봄



공진모

- 現 (사)한국미술협회 행사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공진모의 풍경화展-11회개인전 (96~13)
-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중구문화예술인상 수상(서울 중구 2013)
- 國際公募 日本ART未來展 入賞-일본 국립신미술관
- INNOVATION&BRAND大賞 受賞(스포츠서울신문 2011)
- 大韓民國 革新 韓國人賞 受賞(스포츠조선신문 2011)



5월의 노래



노현지

- 흥익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수료
-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운영위원
- (주)마노크리에이티브그룹 연구디자인팀 팀장
- 인천대, 서경대 출강



Dream land



박영길

- 現 예원예술대학원 문화예술특임교수
- 국제교류협회 상임이사
- (사)한국미술협회 위원장 겸 당임직 이사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심사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운영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초대작가



춤을 추며



윤규현

- 現 이탈리아 국제심포지엄, 유니버스공모전 국제심사위원
- 아세아국제미술협회 충청(남, 북)도 총연합회 회장
- 일본불교미술전 1987년, 국제 대전 최우수, 그랑프리 (조각부문)
- 2013년 중국 상하이 국제미술제 아시아국제미술인상 특별상 등 수상
- 충북 음성군 UN 사무총장 반기문으로 조각 조형물 설치 등 524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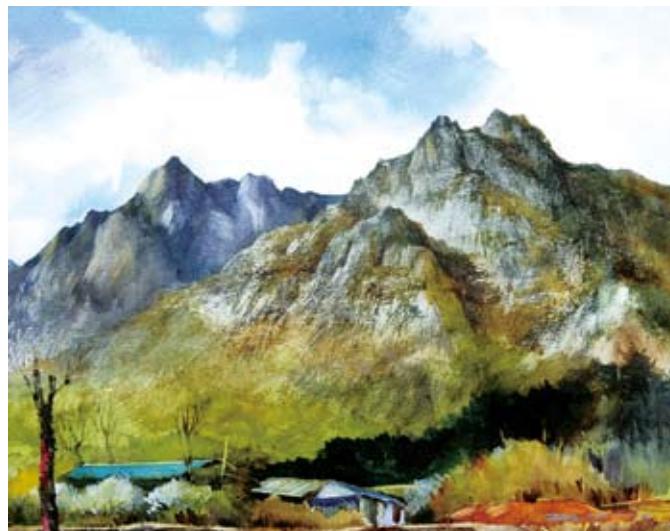


꿈 미래



양성모

- 現 (사)한국미술협회 정무이사
- 국제작은작품미술제 대표
- 한국자연동인전 자문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등
다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양성모 수채화전 “한 숨소리”전 등 다수 개인전 개최
- 국제작은작품미술제 등 단체전 참가



월출산 아래



이평수

- 現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 대전엑스포 공식 사진가
- 움직이는 미술관 출품(국립현대 미술관)
- 한국 이미지 홍보 사진가(공보처)
- “The Land Morning calm” 하와이 사진전 디렉터(하와이)
- ‘SEOUL PHOTO ART FAIR’ 참여



최강 육군



조명동

- 現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 한국사진작가협회 50년사 편찬위원장
- 경향신문 사진부 부장 역임
- 인터넷 경향신문(경향닷컴) 사진전문기자
-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역임



돌격



홍성모

- 現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겸임교수
원광대학교 미술대학강사
- 이당미술상 수상
- 한국 전통산수화 소장작가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현대미술 100초대전 참가
- 후소회 등 400여회 招待, 그룹전 出品



오장폭포의 가을



최창길

- 現 (사)한국미술협회 문인화분과 운영이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분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분 다수 심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분 다수 심사



참새



황치봉

- 現 (사)한국서예협회 이사, 경기지회고문
-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운영 및 심사
- 한국안중근의사 서예협회 회장



강암선생 詩

1차 심사평

- 호국의 정신과 나라사랑의 숨결이 느껴지는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평에 앞서 훌륭한 작품을 출품하여 주신 작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차 심사는 평면회화, 문인화, 서예, 시각디자인, 조소, 사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심사위원들이 장시간의 숙의를 거쳐 입상작품을 선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 '호국과 나라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는 미술전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겁지 않을까 생각하였지만 심사에 나서는 순간 저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참신한 발상과 다양한 소재, 독창적인 표현력, 조형성, 세심한 관찰력 등이 돋보인 많은 수작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심사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우수한 입상작을 가려내는 심사였지만 출품자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대회의 수준을 기능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불과 3회째를 맞이 하였지만 출품작품의 수준과 관심도 면에서 여느 미술 대회 못지 않은 큰 대회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됩니다.

입상하신 모든분께 축하의 말씀과 입상권에 들지 못한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받는 대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 1차 심사위원장 김호선 -

본선 심사평

- 호국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에 대한 고귀한 마음이 녹아들어간 작품을 심사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자신의 꿈을 키우며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한 대회, 군 장병들에게는 문화예술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6개 미술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에 대해 심사위원 모두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였으며 호국미술대전의 취지를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한 많은 작품들에 대해 등위를 매기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상작품들은 제작과정에서부터 작가들의 각고의 노력과 예술적 혼을 담은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각 분야별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대상작을 선정하는데 많은 심사숙고를 하였지만 심사위원들의 이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마지막 투표를 통하여 평면회화 한국화 분야인 오미현氏의 [군사우편]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아들과 부모님(어머니)의 그리움을 소재로 그려진 이 작품은 한지에 채색기법을 충분히 소화시켰으며 참신하면 서도 창의적이고 회화성이 뛰어난 수준 높은 작품으로 대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서예(한글, 한문) 분야에서는 판본과 궁체가 주류를 이뤄 다양성의 부족이 다소 아쉬웠지만 빛은 듯 한 아름다운 봇질은 출품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문인화 부문은 그 작품의 예술적 창작이 굳건한 기초를 토대로 작가의 개성과 역량이 십분 발휘되어진 것으로 볼 때 장법과 결구 그리고 발묵의 아름다운 표현 등 창작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시각디자인 부문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아이디어와 조형감각을 지닌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조소작품은 현역군인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다양한 재료와 형태를 가지고 군 생활이라는 어려운 작품활동 환경속에서도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인 장병들의 참가한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1회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고 있는 사진 부문은 군의 강인함과 역동성을 현장감 있게 잘 표현하였으며 특히 독특한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개성있게 표현한 작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회 호국미술대전은 여느 대회보다 출중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아 성황리에 행사를 치르게 된은 물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전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술계를 새롭게 이끌어 갈 신진작가의 발굴과 육성의 단초가 되길 기원하며, 대회를 주최한 육군본부와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도 낙선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선 심사위원 일동 -

추진경과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전시회 개막까지

○ 조직·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 운영위원회 회의



○ 1차 심사(회화, 서예, 문인화, 시각디자인, 조소, 사진)



○ 본선 심사



○ 서예·문인화 현장 휘호





내 나라의 호국과 안보의 기도

대상_ 평면회화(한국화)부문 오미현

하루에도 몇 번을 비오는 듯한 땀으로 씻습니다. 그 한 방울 한방울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 그리고 오늘 체력단련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발전했구요~^^

어머니!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입대전에 운동하라고 몰아부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뒤쳐지지 않고 앞으로 쭉쭉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드디어 공수교육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늘을 제 안방처럼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아들올림 [군사우편 중]

내 나라의 호국과 안보를 기도하고 응원하는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집 네남자중 세남자가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군복무에 열정을 다 해 애쓰고 있을때, 나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하고 더불어 성실하고 실력있게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힘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을 퇴원한 아흔 시어머니의 아픈몸을 간병하면서 한쪽 거실에 쭈그리고 엎어져 쪼개진 시간마다 봇을 잡는 애틋한 채색은 힘든 환경까지 이겨내는 희열이었습니다.

내 조국의 꽃을 그리면서 평화를 기도하고 주고받은 편지글 한자 한자 다시 새겨그리면서 가슴이 울컥... 자긍심과 사명으로 거듭 난 아들의 글은 그 대견스러움이 어찌 감동 아닐까요?

굳게다문 입술, 눈빛의 위용. 절도있는 아들의 경례는 듬직하고 기개가 있는 대한의 아들로 세워짐을 실감합니다.

행복하게만 그린 그림이 대상의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모두 보는 이들의 마음에 힘이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위해 힘쓰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고맙고 사랑한다.

너희들이 아니었음 어찌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각자 자리에서 우리 힘내자! 열심히 생활하자! 화이팅!!



내일을 품안에

최우수상_ 조소부문 상병 허 건

첫 공모전을 군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렌 마음으로 틈틈이 작품 구상을 하고 작업할 장소를 마련하고 휴가나 외박을 나가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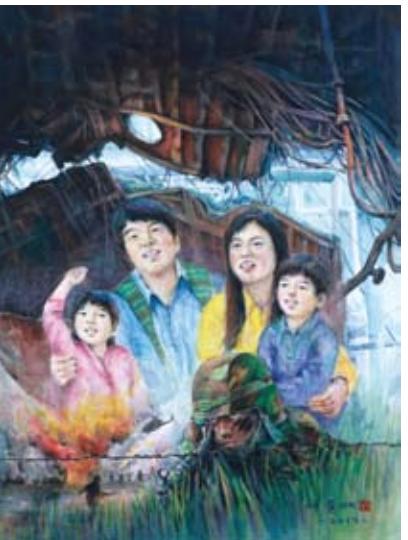
준비를 마친 뒤 바로 작업을 위한 빼대 만들기에 돌입하였고 부대 내의 도서관을 이용해 책과 자료를 참고하여 흙 작업을 하였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한 달 정도 작업하였습니다. 캐스팅작업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에 완성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캐스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쪽을 나누고 석고틀을 만들고 흙을 빼낸 후, 왁스를 바르는 등 FRP 캐스팅과 수정까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두 달 간의 작업을 마쳤고, 채색은 동(銅)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작품의 구상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고민과 결정이 온전히 내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작업을 마칠 때는 예전에 작업을 할 때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재료구입과 반입에서부터 작업 장소선정, 작업시간의 제약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석고틀의 파손사고, 재료분실, 무더위 등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님들의 지원과 선임, 동기, 후임들의 열띤 응원이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완성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한 단계 성장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던 나날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호국미술대전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중대장님, 중대 전우들 사랑합니다!





도전의 의미와 함께 다져진 감사함

우수상_ 수채화부문 서윤애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호국 미술 대전'...

간략한 응시요강과 함께 도전해 보라는 짧은 한마디, 그 한 통의 문자를 받고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을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군인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13년... 그 동안 11번의 이사를 하면서 많은 지역을 돌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왔던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군 생활을 평계로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 좋은 성과를 가져와도 늘 무관심하게만 보였던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상황도 처음인지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듯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에 힘쓰고 있는 젊은 장병들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온 국민의 가슴을 시리게 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 아픔을 잘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대구의 여름을 그렇게 호국미술대전에 매진하면서 다시 한 번 내 나라, 내 조국, 그리고 남편을 비롯해 우리 국방에 힘쓰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귀한 땀방울을 생각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도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뒤에 숨겨진 그들의 값진 노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응했던 도전은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었고 작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작품속에는 천안함의 모습도 있고 연평도포격사건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큰 사건의 하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 사건들을 작품에 담아내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일상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에 힘쓰고 있는 국군장병들께 감사함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무심한 듯 하지만 가슴 따뜻한 사람, 내 남편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내가 군인의 아내인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만들어 준 당신이 있기에 행복한 우리 가족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 피어난 따뜻한 감동

우수상_ 디자인부문 최진욱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몸을 맡겨 함께 뛰다 보니 나라사랑, 국군의 고마움 등은 생각할 거를이 없었고, 제 주위만 신경쓰기에도 부족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호국미술대전의 공모요강을 보게 되었고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제2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당시 교수님의 권유로 참가했던 저였지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는 군인도 되어보고, 군인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도 되어보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군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마음을 다시 느끼고자 올해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진짜사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국군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고 용맹하다, 외롭고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국군의 용맹한 모습을 표현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지키던 옛날 철모에서부터 현재의 철모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모습을 암모나이트 화석처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용맹하고 멋진 국군의 모습을 역사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걱정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국군의 위상이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와 많은 사람들이 나라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호국미술대전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육군참모총장님 이하 호국미술대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상과 굳셈을 한 폭의 문인화로...

우수상_ 문인화부문 이 영 실

저는 두 딸을 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둘째 딸이 여섯 살 되던 해, 잠시나마 육아와 살림에서 벗어나 나만의 취미,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린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서예를 배웠고 한문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그에 어울리는 그림도 그리고 싶어 문인화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에 더욱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둘째가 대학생이 된 지금,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실에서 공부하던 중 호국미술대전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의 강인함과 진한 땀을 대나무의 기상과 굳셈으로 꽃의 아름다움과 단단함으로 표현하고 싶어 호국미술대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도전에 입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취감과 뿌듯함은 지금도 저를 짜릿하게 만듭니다.

비록, 2회 대회는 접수 날짜를 놓쳐 도전하지 못하여 많이 아쉬웠지만,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여 올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잊고 있었던 도전과 도전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의 결과로 얻은 성취감을 다시 알게 해준 호국미술대전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장병들도 도전과 열정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육군 장병여러분 화이팅!!



빠른 세월 속에 피어난 따뜻한 감동

우수상_ 서예(한글)부문 박 은 경

안녕하세요, 이번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우수상을 받게 된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육군에 큰 아들을, 해군에 막내아들을 보낸 두 군인의 어머니로서 자식들과 이 기쁨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2남 1녀의 가족과 남편의 건전한 미래를 기원하며 시작한 봇질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고보니 기쁘기 그지 없군요.

소싯적엔 군인 아저씨를 보면 전투적인 복장에 주눅이들고 위화감을 느껴서 괜히 쭈뼛거렸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 내 자녀를 군에 보내놓고 나니 새삼 세월을 느껴서 혼자 웃어 보곤합니다.

이제는 군복입은 장병들을 보면 먼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을 건너 본답니다.

“아이구 아들! 부모님이 대견해 하시겠다.” 라고요.

군복입은 사람은 다 아들로 보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명절도 반납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저의 두 아들과 젊은 대한민국의 국군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후방에서 저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감사함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의 무궁한 발전과 승승장구를 빌어 봅니다.



|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황인무 | 육군참모차장
 조직위원 노복환 |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류경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조강훈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최호천 |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이사장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이봉우 | 육군정훈공보실장
 운영위원 회화 | 공진모 박영길 양성모 흥성모
 문인화 | 김영삼 최창길
 서예 | 고후규 황치봉
 사진 | 이평수 조명동
 디자인 | 노현지 이용일
 조소 | 윤규현 이경우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1차 | 김호선
 심사위원 본선 | 전오남

| 심사위원 | 회화 1차 | 강철기 윤민자 오정식 이경용 이종원 허기진
 본선 | 김훈곤 양종환 정근찬 정영남 한정희
 디자인 1차 | 김금재 우영희 윤석배
 본선 | 박숙희 박영기
 조소 1차 | 성현도 신동희
 본선 | 박도춘 이용철
 사진 1차 | 김호선 서일성
 본선 | 전오남 정건영
 서예 1차 | 윤점용 이상덕 이일권 최민렬 흥동의
 본선 | 김옥순 박정숙 류기곤 정현식
 문인화 1차 | 공명화 최영조
 본선 | 김영실 이상배



호국
미술
The 3rd Korea Hoguk
Art Exhibition





발행인 육군참모총장

발행처 육군본부

발행일 2013. 10. 8

전시기획 아트앤플

디자인 및 인쇄 부운디자인

사무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호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 042-550-6552(군 960-6522)

※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